

# 남구, 차별 허무는 '장애인 공감 문화제' 연다

## 19일 반다비 체육센터 1층 합창·힙합댄스 등 기량 뽐내

광주 남구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 인식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한 공감 문화제를 개최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 공감 문화제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반다비 체육센터 1층 체육관에서 2시간가량 열린다.

비영리단체인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남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식구들과 시설·단체 관계자, 주민 등 200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애 공감 문화제 1부 무대는 광주 장애인예술인협회에서 선보이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 및 격려사, 장애인복지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오덕희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마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김미

선 대표 등 7명이 남구청장 표창과 남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는다.

2부 무대는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관내 거주 장애인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채워진다.

남구 장애인 문화 예술단에서 활동 중인 행복이음 합창단과 칸타빌레 앙상블 2팀이 각각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합창 실력과 악기 연주를 들려준다.

또 관내에 있는 광주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푸른동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라브리 주간보호센터, 소화천사의집 소속

동아리 4팀도 힙합댄스를 비롯해 하모니카 연주, 난타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공감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올해 6회째를 맞는 장애 공감 문화제는 더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벽을 허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광산구, 9개 기관 민·관 협약

광주 광산구가 종교단체, 장례식장과 손잡고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

광산구는 지난 12일 광주미래교회, 분향교회, 송정소망교회, 송정제일교회, 광주불교연합회, 천주교원동성당, 수완장례식장, 빛장례식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 9개 기관과 '광산구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산구는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모 의식을 맡는다.

각 장례식장은 빈소를 마련해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장제 비용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지원한다.

김상철 기자

## '찾아가는 건강캠프' 운영 서구, 11월까지 10개 동 순회

광주 서구가 일선 동 현장에서 각종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캠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건강생활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등 서구보건소 5개 부서, 물리치료과·간호학과·안경광학과·치위생학과 등 광주보건대학교 4개 학과, 보라안과 등 관·학·민 연계를 통해 기획됐다.

지난 12일 풍암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0개 동을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캠프 두 번째 일정은 19일 농성1동 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건강캠프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과검진, 시력측정 △정신건강(우울증·스트레스)검사, 치매검사 △기초건강검진(혈압·혈당) △한방치료 △물리치료 △결핵검진 등 다양한 기초 건강검진·상담과 함께 금연지도 및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강주비 기자



## 무등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남구, 19일까지

광주 남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무등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오는 19일까지 구매 품목에 따라 1·2차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무등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금액 기준으로 3만4000원과 6만7000원 이상 구입한 소비자에 각각 온누리 상품권 1만원과 2만원을 환급하고 있다.

1차 품목은 농·축산물로 지난 6·12일 해당 품목을 구입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은 소비자는 1500명으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 금액만 3000만원이다.

무등시장 농·축산물 20개 점포에서 1억원 가량 농·축산물 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차 시기인 19일까지 무등시장 15개 수산물 점포가 환급 행사에 참여하며 소비자는 구매 당일 무등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성아 기자



지난해 광주 서구가 운영한 '쌍손케어 돌봄교실'에서 어르신들이 한방꽃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 서구,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내결에 돌봄교실' 운영

### 광주보건대 복지관과 협력

광주 서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결에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내결에 돌봄교실은 사회적 관계망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돌봄교실은 쌍손케어 돌봄교실과 농성동 나은하우스

의 '나은 돌봄교실' 두 이다. 광주보건대학교와 쌍손케어 돌봄교실, 농성빛여울 채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쌍손케어 돌봄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꽃차 △전래놀이 △재활운동 △제과제빵 △인자·신체트레이닝 △화분·꽃바구니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은 돌봄교실은 매일 △도에 △캘리그래피 △퀵트 △미술 △원예 △근력운

동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각 20명 이내로 통합돌봄 대상자와 인근에 거주하는 학습 기회가 적은 노령층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해당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성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돌봄교실을 통해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소통과 교류활동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 북구, 금융기관 손잡고 소상공인 돕는다

### 새마을금고·신협 등과 협약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지역 새마을금고·신협 등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000명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1계좌 조건이며 가입 기간은 1년 만기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적금 만기 때는 최대 62억원 규모 소상공인 생활자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북구 지역 11개 새마을금고 또는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등지를 찾아 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약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

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북구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금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출시된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은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 3.5%에 북구와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우대 금리 각 1.5%를 더하면 6.5% 금리가 제공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소상공인 생업 안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광산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광주광산구의회는 지난 12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강한솔 의원을 비롯

해 나진수 공인회계사, 조희훈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5월1일까지 광산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산검사가 마무리

되면 10일 이내 감사의견서를 광산구에 제출해야 하며 광산구는 감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 5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강한솔 의원은 "예산이 구민을 위해 쓰였는지 감사할 계획이다"며 "구민 눈높이에서 투명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 도서관 육성·발전 문체부 장관상 남구, 운영 활성화 분야

광주 남구가 주민들의 정보 접근 해소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24 도서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관상을 받은 행정기관은 남구를 포함해 전국 3곳이며 유공자는 18명이다.

남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 포상 기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8년~2022년 매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공립 작은도서관 6곳을 조성하고, 3곳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동네마다 촘촘한 독서 기반 시설을 구축한 공로다.

정성아 기자



## 제9기 청소년구정참여단 발족 서구, 아동·청소년 80명

광주 서구는 지난 1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서구청소년구정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9기 서구청소년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사회와 아동권리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 80명으로 구성됐다.

구정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서구청 소년수련관과 함께 △청소년참여예산 신청 △구정사업참여(맨발걷기, 줄강 등) △역량강화워크숍 △정책바스켓 운영 △구청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아동참여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강주비 기자